

지혜 암묵이론의 성차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지혜의 암묵이론에서 성차를 조사하기 위해 세 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지혜 관련 특질들이 얼마나 전형적인 지혜 특질인지를 평정하게 하였다. 연구 1의 결과 절제와 균형 요인과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절제와 균형, 공감적 대인관계 특질들을 더 전형적인 지혜 특질로 평정하였다. 연구 2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명하게 하고, 지명된 지혜자의 지혜를 평정하게 하였다.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에서 지혜자 성별에 따른 지혜의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 지혜자의 공감적 대인관계 특질들이 남자 지혜자보다 높다고 평정하였다. 연구 3에서는 자서전적 이야기 기법을 활용하여 노년기 성인들에게 살아오면서 자신이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 보고하게 하였다. 남자와 여자들이 보고하는 지혜로운 사건 범주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들은 직업과 관련된 사건을 가장 많이 보고한 반면, 여자들은 자녀와 관련된 사건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지혜의 암묵이론의 성차 즉, 지혜 지각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암묵개념의 성차를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사회화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지혜, 암묵이론, 성차, 지혜자, 공감적 대인관계, 자서전적 인생이야기, 성역할

* 교신저자: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E-mail: pseudo@kcg.ac.kr

지혜의 암묵이론

현재까지 지혜 연구의 한 분야는 ‘일반 사람들이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둔 것인데, 특히 초기의 많은 지혜 연구들이 지혜개념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 즉 지혜의 암묵이론(implicit theory)¹⁾에 초점을 두었다(Clayton & Birren, 1980; Holliday & Chandler, 1986; Sternberg, 1985). 지혜의 소박한 개념을 조사하는 이러한 방법은 일차적으로 범주화 혹은 원형 이론에 의존한다(Rosch, 1978). 지혜의 암묵이론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대상의 구체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구성개념(예를 들어 성격 특질)(Buss & Craik, 1981; Cantor, Mischel, & Schwartz, 1982)처럼 보다 추상적인 것의 암묵이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서로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혜의 암묵이론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은 어떤 문화에서의 지배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혜의 암묵이론이 우리 문화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적 동일하게 관찰된다면, 그러한 지혜의 암묵이론(지혜의 개념)은 보편적이고 강력한 구성개념이 될 것이다(Holliday et al., 1986). 둘째, 지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비공식적인 상식적 개념은 지혜의 심리학적 이론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암묵이론의 연구 결과들이 지혜의 명시적 이론 모델을

세우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Ardelt, 2000, 2003). 예를 들어, Ardel(2000)은 암묵이론의 문헌들을 조사하여 지혜의 세 개 핵심 요소를 제안하였는데, 인지적 요소는 지식, 통찰, 문제해결과 같은 측면을 구성하고, 반성적 요소는 자신을 포함하여 한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여러 사람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려는 동기에 기반하는 것이며, 감정적 요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사랑으로 정의된다. 셋째, 암묵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삶에서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평가할 때 그러한 암묵적 이론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혜의 암묵이론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수와 범위에서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소수의 심리학자들이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지혜의 암묵이론을 조사하여왔다. 첫째, 참가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Brent & Watson, 1980; Clayton et al., 1980; Holliday et al., 1986; Sternberg, 1985), 둘째,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형용사(예를 들어, 경험이 있는, 머리가 좋은, 경솔한)들이 지혜로운 개인의 특징 인지를 평정하게 하는 것(Clayton et al., 1980; Farrell & Hershey, 1996; Heckhausen, Dixon, & Baltes, 1989; Hershey & Farrell, 1997; Holliday et al., 1986; Perlmutter, Adams, Nyquist, & Kaplan, 1988; Sternberg, 1985), 셋째, 참가자들에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명해보도록 하는 것(Baltes, Staudinger, Maerker & Smith, 1995; Perlmutter et al., 1988), 마지막으로 연령이나 성별에서 차이가 나는 비디오테이프 녹화된 사람들이나 혹은 시나리오에 나타난 인물들이 지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평정하게 하는 것(Hira & Faulkender, 1997; Stange, 2005)이었다.

1) 암묵이론(implicit theory): 명시적 이론과는 달리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비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기초로 개념체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매일의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된 ‘자연 그대로의 소박한’ 이론으로,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물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혜의 암묵이론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지혜 개념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이고, 뛰어난 인지적 전문성, 비범한 성격 발달, 비상한 사회적 기술과 같은 다양한 바람직한 개인적 특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Clayton et al., 1980; Holliday et al., 1986; Maciel, Staudinger, Smith, & Baltes, 1992; Shedlock & Cornelius, 1995; Sternberg, 1985). 또한 지혜는 각 시대의 지적, 도덕적, 문화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개념은 그 사람의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자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에도 동의한다(Overton, 2003).

예를 들어, Levitt(1999)는 13명의 티베트 불교 승려들을 인터뷰하였는데, 이들은 지혜를 불교 관념에 대한 이해로 정의하고 있었다. Takayama(2002)는 일본인의 지혜의 암묵이론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일본인들은 지혜를 실용적이고, 경험에 바탕을 둔 능력으로 정의하지만 추론 능력이나 일반적 지능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대만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Yang(2001)의 연구에서 대만 중국인들은 라틴계 미국인이나 티베트 승려들과는 달리 지혜를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닌 사회의 조화를 가져오는 실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Yang(2001)은 겸손함과 주제 넘지 않음이 중국 문화의 독특한 지혜 특징이라고 강조하였다.

Takahashi와 Bordia(2000)는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젊은 성인들 사이의 지혜의 암묵이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였는데, 미국인과 호주는 지혜를 ‘경험 있는’, ‘지식이 있는’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정한 반면 ‘사리분별 있는’과는 가장 덜 관련된 것이라고 평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서구의 지혜에 대한 이해가 삶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광범위한 지식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Achenbaum & Orwoll, 1991; Clayton et al., 1980). 반대로, 인도인과 일본인은 지혜를 ‘사리분별 있는’, ‘나이든’, ‘경험 있는’의 순서로 평정한 반면, ‘지식이 있는’은 지혜와 가장 먼 것으로 평정하였다. 이것은 지혜의 의미가 특정 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한다는 가설을 강하게 지지한다. 인도와 일본과 같은 동양 문화들은 지식 축적과 같은 인지적 특징을 덜 강조하고, 대신 지혜를 ‘사리분별 있는’과 동일시하였다. 인도인과 일본인은 지혜가 단지 인지적 능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서적 관여를 수반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한국인의 지혜의 암묵이론은 서구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연구된 적이 없었던 한국인의 지혜 개념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혜의 암묵이론의 성차

사실 지혜의 절대적인 정의에 대해 연구자들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Aldwin, 2009), 지혜 연구자들은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지혜 개념에 안정적인 개인차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Bluck & Glück, 2005; Glück & Bluck, 2008). 즉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와 관련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지혜 특질들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지혜의 특정 특질을 지각하는 데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다(Sternberg, 1985). 실제로 연령과 문화에 따라 강조하는 지혜의 특질이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예를 들어,

지혜의 감정적 요소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든 사람들이(Clayton et al., 1980), 또한 유럽계 미국인들보다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질이다(Takahashi et al., 2000; Takahashi & Overton, 2002).

따라서 만약 우리가 지혜의 성차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면, 지혜 개념의 성차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혜에 대한 “남성”의 개념과 “여성”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가? “남성의 지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여성의 지혜”에 대한 생각과 다른가? 그러나 오늘까지 지혜의 암묵이론의 성차에 초점을 둔 연구는 소수이다.

지금까지 지혜의 암묵이론 연구에서 성차에 대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지명자 연구로부터 나온 것인데, 지명자 연구는 참가자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의 이름을 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많이 지명되었는데(Denny, Dew, & Kroupa, 1995; Jason, Reichler, King, Madsen, Camacho, & Marchese, 2001; Sowarka, 1989), 최근에 이루어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Gluck, Bischof, & Siebenhüner, 2008). Sowarka(1989)의 연구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Glück et al.(2008)의 연구에서, 여성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명한 사람들의 반 정도가 여성이었던 반면에, 남성 참가자들은 대부분 남성을 지혜자²⁾로 지명하였다. 즉, 여성은 남녀를 비슷한 비율로 지명하였고, 남성들은 압도적으로 남성을 많이 지명하였다. 하지만 참가자들에게 “대인 관계적으로 지혜로운” 개인을 지명하도록 하였을 때는 여성들이 더 많이

지명되었다(Denny et al., 1995).

Paulhus, Wehr, Harms, & Strausser(2002)의 연구에서는 학부생들에 유명한 사람들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해보라고 요구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15명은 간디, 공자, 예수, 마틴 루터 킹, 소크라테스, 테레사 수녀, 솔로몬, 부처, 교황, 오프라 윈프리, 윈스턴 처칠, 달라이 라마, 앤 랜더스³⁾, 넬슨 만델라,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순이었다. 이 사람들을 지혜로운 것으로 지각하게 만든 특질은 무엇인가? 열거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이거나 혹은 평화적이고 박애적인 수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목록에 언급된 남성들은 사색가이거나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었지만, 여성들의 공통점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과 그 사람들이 실제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마도 그 사람들을 지명한 것은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명자 연구의 성차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이유로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명하고, 또한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이유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명된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명하는 것은 지명자의 지혜에 대한 개념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가자들에게 지혜와 관련된 특질 목록에 대해 전형성(중요도)을 평정하게 하는 기술 평정 연구들 중 지혜의 암묵이론의 성차를 보고한 것은 없었다(Bluck et al., 2005).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 성차를 단순히 분석하지

3) 미국의 컬럼니스트이자 유명한 인생 상담가.

2) 지혜자란 지혜의 정도가 높다고 평가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이다.

않은 것인지,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Glück, Strasser, & Bluck, 2009).

지혜의 암묵이론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지혜와 더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음을 보여주고 있으며(Jason et al., 2001; Sowarka, 198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의 지혜는 남성의 지혜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지각됨을 보여준다(Denney et al., 1995). 즉, 여성들은 지적-통찰적 특징보다는 사회적-연민적 특징에 더 가치를 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혜의 암묵이론에서 성별의 역할을 밝힌 연구는 제한적이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지혜와 더 관련되어 있다는 문화적 신화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지혜의 암묵이론 혹은 지혜 개념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상이한 연구방법들을 사용하여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 연구들 간의 공통되는 결과와 차이는 결과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혜의 암묵이론에 대한 선행 연구 방법을 따라 암묵적 이론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둔 세 개의 연구로 구성하였다: 남성과 여성이 지혜에 전형적이라고 간주하는 특질들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혜의 원형(지혜자)으로 지각하게 되는 특질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삶에서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는 사건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나는가?

연구1: 지혜 특질의 전형성 평정 연구

연구 1의 목적은 전통적인 기술문 평정 방법을 사용하여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관점, 즉 지혜의 암묵이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지혜와

관련된 특질 기술문들에 대해 각 특질이 얼마나 전형적인 지혜 특질인지 즉, 지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평정하게 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혜 특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참가자

참가자는 18세-67세의 성인 361명으로,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36.80세였다. 참가자 중 40세 미만의 청년집단은 177명이었고, 40세 이상의 중년집단은 183명이었으며, 무응답이 2명이었다. 남성은 205명, 여성은 157명이었다.

청년 표본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들이었고, 설문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참가의 대가로 작은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중년 자료는 대학생 조사원을 통해 수집되었는데, 조사원은 서울 소재의 대학에서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2명이었다. 연구자가 조사원들에게 조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다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조사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였고 설문지 수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였다. 참가자들이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측정도구

지혜 특질 기술문: 김민희, 민경환(2010)이 개발한 지혜 척도(KMWS)를 사용하였다. KMWS는 한국인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혜

척도이다. 이 척도는 19-73세의 성인 224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지혜와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 다음, 지혜와 관련된 특질 문항을 작성하게 하여 수집된 지혜 특질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MWS를 지혜 특질 전형성 평정을 측정하는데 맞도록 수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나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를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KMWS는 4개 요인으로 구성된 43문항의 다요인 지혜 척도이다. 척도의 4개 하위 요인은 인지적 역량, 절제와 균형, 긍정적 인생태도, 공감적 대인관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적 역량’ 요인은 지적 능력, 통찰, 문제해결 능력 등과 관련된 16문항으로, ‘정확하고 빠른 상황 판단을 내린다’, ‘지식을 일상생활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절제와 균형’ 요인은 삶에서의 절제, 평정, 균형 등과 관련된 11문항으로 예 문항은 ‘자기절제를 할 줄 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이룬다’ 등이다. ‘긍정적 인생태도’ 요인은 긍정적인 인생 가치관, 인생 향유 등에 관련된 10문항으로 ‘미래에 대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즐기면서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 대인관계 너그러움과 관련된 6문항으로 예 문항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안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Cronbach α 는 .91이고 요인별 Cronbach α 는 .74~.87이다. 각 문항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질에 해당하는 정도, 지혜의 특질로 얼마나 전형적인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1점은 전혀 그렇지 않

다, 5점은 매우 그렇다).

결과 및 논의

참가자들이 평정한 전형성 점수는 인지적 역량 요인이 가장 높았다.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연령범위가 넓고, 교육수준이 다양함으로 연령과 교육수준의 효과가 성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령과 교육수준의 효과를 통제 후 네 개의 요인의 지혜 개념에 대한 성별의 효과를 보기 위해 MANCOVA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953, $F=4.036$, $p<.01$). 추가적 ANOVA를 실시한 결과 성차는 절제와 균형 요인($F_{(1,351)}=4.433$, $p<.05$)과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F_{(1,351)}=8.966$, $p<.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보다 여자가 절제와 균형 요인과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의 특질들을 지혜의 더 전형적인 특질로 평정하였다.

이는 여성들의 지혜가 지적 특징보다는 사회적-연민적 특징에 더 가치를 둔다는 Denney 등(1995)의 설명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Denney 등(1995)의 연구는 직접적으로 지혜 특질의 전형성을 평정하게 한 연구가 아닌 지혜자 지명 연구의 결과이며, 특히 한국 남성과 여성의 지혜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이전에 연구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혜 개념의 성차는 지혜의 암묵이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결과이다. 참가자 성별에 따른 요인별 지혜 점수의 차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남자와 여자의 지혜 특질 전형성 평정

	남자(N=205)	여자(N=157)	F
지혜 요인	M(SD)	M(SD)	
인지적 역량	3.90(.53)	3.80(.53)	1.241
절제와 균형	3.59(.54)	3.71(.50)	4.433*
긍정적 인생태도	3.62(.53)	3.71(.52)	3.742
공감적 대인관계	3.61(.65)	3.82(.59)	8.966**
전체	3.63(.42)	3.67(.41)	1.776

* $p < .05$, ** $p < .01$, *** $p < .001$

연구2: 지혜자 지명 연구

연구 2는 ‘지혜로운 남성과 지혜로운 여성에 대한 개인의 정신적 표상 즉, 남성과 여성의 지혜 원형은 다르게 지각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성인 남자와 여자들이 어떤 사람을 지혜자로 생각하는지, 또 지혜자로 지명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지혜자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혜 개념에 대한 남녀의 암묵이론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참가자

연구 2는 두 번의 표집으로 이루어졌다. 일차 표집된 참가자들은 성인 193명이었는데, 남자가 60명 여자가 133명이었고, 40세 미만의 청년집단이 144명, 40세 이상의 중노년이 48명, 무응답은 1명이었다. 참가자 연령은 18-74세로 평균 연령은 27.16세였다. 참가자는 서울

과 경기도 소재 대학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들과 학생들을 통해 표집된 중노년기 성인들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학부생들에게는 연구 참여의 대가로 추가학점을 부여하였고, 중노년 참가자들의 설문 배포와 수거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작은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첫 번째 표집의 참가자들이 설문 작성에 걸린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이차 표집된 참가자는 성인 386명으로, 남자가 153명, 여자가 232명이었고, 40세 미만의 청년이 319명, 40세 이상의 중노년이 66명, 무응답이 1명이었다. 연령은 19-73세로 평균연령은 28.11세였다. 참가자의 표집은 첫 번째 표집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참가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들과 학생들을 통해 표집된 중노년 성인들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 친척, 지인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이차 표집의 참가자들이 설문 작성에 걸린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학부생 참가자들에게는 연구 참여의 대가로 추가학점을 부여하였다.

측정도구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개방형 질문지와 연구 1에서 사용한 지혜 척도인 KMWS(김민희, 민경환, 2010)를 지혜자 평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나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를 '그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로 수정하였다.

일차 표본에게는 지혜자 지명만을 요구하였는데, 자신이 잘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한 명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자신과의 관계를 보고하게 하였다. 반면 이차 표본에게는 지혜자 지명과 지혜자 평정이 모두 실시되었는데, 즉 자신이 잘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자신과의 관계를 보고하게 한 다음, 지명한 지혜자에 대해 KMWS의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결과 및 논의

결과 분석에 있어서 지혜자 분석은 일차 표본과 이차 표본의 결과를 합하여 분석하였고, 지혜자 평정 분석은 이차 표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지혜자의 인구학적 특성 분석

참가자 성별에 따라 지명된 지혜자의 연령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759, p=.079$). 즉, 남성 참가자와

여성 참가자가 지명한 지혜자의 연령은 각각 44.07세와 46.09세로 비슷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명된 전체 지혜자의 평균 연령(45.34세)은 선행 연구들의 지혜자 연령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 Perlmutter 등(1988)의 연구에서 지혜자의 평균 연령은 50세였고, Jason 등(2001)의 연구와 Baltes 등(1995)의 연구에서는 60세였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본 연구에 포함된 청년 참가자의 수가 중년 참가자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혜자로 지명된 사람의 연령은 참가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r=.322, p<.01$). 지명된 지혜자의 연령이 참가자의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것은 Denny 등(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지명된 지혜자의 평균 연령이 중년 이상으로 비교적 높고, 참가자의 나이와 함께 지명된 지혜자의 나이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암묵적 이론에서 연대기적 나이가 지혜와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전체적으로 지혜자로 지명된 사람의 수는 남성이 약간 많았다. 남성들과 여성들이 지명한 지혜자의 성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 성별에 따라 지명되는 지혜자의 성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805, df=1, p<.001$). 즉, 남자 참가자의 78%가 남자를 지명한 반면 지혜자로 여자를 지명한 남자는 22%에 불과했다. 한편 여자 참가자의 40.3%는 남자를 59.7%는 여자를 지명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인데, Perlmutter 등(1988)의 연구와 Sowarka (1989)의 연구에서는 지명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지혜자로 지명된 사람들의 다수가 남성이

표 2. 참가자 성별에 따른 지혜자의 성별

지명자 성별	지혜자 성별	
	남자	여자
남자	284명 (78.0%)	80명 (22.0%)
여자	242명 (40.3%)	358명 (59.7%)

었다. 선행연구와의 이러한 차이가 문화적 차이나 시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양 문화에서 지혜로운 주변 인물을 지명하게 한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지혜자의 성별 분포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지명된 지혜자의 기타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 졸업이 가장 많았으나 청년집단이 지명한 사람들 중에는 대학생의 비율도 높았는데, 이는 대학생 참가자들이 자신의 친구나 선후배를 지혜자로 지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혜자로 지명된 사람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참가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직이 가장 많아 모두 143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자신의 스승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자 성별에 따

른 지혜자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의 차이는 없었다.

지혜자로 지명된 사람들의 직업으로 교육직이 가장 많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참가자들이 교육과 같은 인간 관련 직업을 통한 훈련이 지혜를 향상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음(암묵적 이론)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둘째, 실제로 그러한 직업적 훈련이나 경험이 지혜를 향상시켰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인생 주제와 관련된 훈련과 연습이 지혜와 관련된 지식을 향상시키고(Baltes et al., 1995), 임상 심리학, 신학, 가족 복지, 교육 등 인간 복지 분야에서의 훈련과 연습이 지혜 촉진을 가져올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었다(Smith et al., 1994).

지혜자와의 관계는 남녀 간 차이가 있었는데($\chi^2=29.705, df=7, p<.01$), 남성의 경우는 친구와 동료, 선후배나 상사와 같이 직업이나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지명한 반면, 여성들은 부모와 조부모를 많이 지명하였고, 특히 부모 중에서 어머니를 지명한 여성이 많았다. Sowarka(1989)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의 가족 구성원을 지명한 반면, 남성들은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지명하였다. 참가자 성별에 따른 지혜자와의 관계는

표 3. 참가자 성별에 따른 지혜자와의 관계

지명자 성별	지혜자와의 관계							
	부모	조부모	스승	친인척	친구 동료	선후배 상사	배우자 연인	기타
남자	68명 (18.8%)	3명 (.8%)	52명 (14.4%)	19명 (5.3%)	71명 (19.7%)	49명 (13.6%)	7명 (1.9%)	36명 (10.0%)
여자	137명 (22.8%)	28명 (4.7%)	96명 (16.0%)	48명 (8.0%)	91명 (15.1%)	47명 (7.8%)	11명 (1.8%)	75명 (12.5%)

표 3에 제시하였다.

지혜자 지혜 평정 분석

지명된 지혜자의 성별에 따라 참가자가 평정한 지혜 특질 점수에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지혜자의 연령과 교육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MANCOVA를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 .952, $F=2.174$, $p < .05$). 추가적 ANOVA 검증 결과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있었다($F=4.289$ $p < .05$). 참가자들은 지명된 여자 지혜자들이 남자 지혜자들보다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에서 조금 더 뛰어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지적 역량 요인, 절제와 균형 요인, 긍정적 인생태도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1의 지혜 특질 전형성 평정에 비해 지혜자 평정에서는 성별의 효과가 작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실제로 지혜로운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혜가 극단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면(Sternberg, 1998),

지혜로운 남성과 지혜로운 여성은 “평범한” 남자와 여자보다는 더 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자 성별에 따른 지혜 특질 평정 점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3: 자서전적 인생이야기 연구

연구 3은 참가자들의 실제 삶과 관련된 지혜의 암묵이론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 3의 목적은 노년기 성인들이 자신의 지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지혜의 암묵이론의 성차를 좀 더 완전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1과 연구 2는 지혜의 암묵이론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혜 관련 특질을 평정하게 하거나 지혜의 원형인 사람들 즉, 지혜자를 지명하고 지혜자들의 지혜 특질을 평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개인의 인생 맥락에 의존적이며, 직접적 삶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질문지를 통한 추상화된 지혜가 아닌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지혜를 자서전적으로 연구하면 양적인 연구에서는 결핍되어 있는 지혜 현상의 보다 복잡한

표 4. 지혜자 성별에 따른 지혜 특질 평정

지혜 요인	남자 지혜자	여자 지혜자	전체	F
	M(SD)	M(SD)	M(SD)	
인지적 역량	4.10(.55)	4.05(.57)	4.08(.57)	.267
절제와 균형	3.94(.63)	3.96(.58)	3.96(.60)	1.149
긍정적 인생태도	4.21(.51)	4.11(.58)	4.15(.56)	.150
공감적 대인관계	3.98(.69)	4.11(.61)	4.04(.66)	4.289*
전체	4.07(.50)	4.05(.52)	4.06(.51)	.663

* $p < .05$, ** $p < .01$, *** $p < .001$

측면을 밝혀낼 수 있다(Michaud, 2004). 지혜 연구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인생 경험의 특징 상 성인들은 누구나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보통의 지혜” 경험을 가지게 되고, 그 인생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Randall & Kenyon, 2001)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자서전적 인생이야기를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Freud (1935), Erikson(1975), Bruner(1990)를 거쳐 현대(Josselson & Lieblich, 1999; McAdams, 2001)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심리학자들과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이야기 ‘말’로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하려고 한다(McAdams, 2001; McAdams, Josselson, & Lieblich, 2006; Singer, 2005). 이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개인의 인생경험 맥락과 인생 경험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으며(Atkinson, 1998), 자서전적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개념과 의미를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Bruner, 1990; McAdams, 2001; Singer, 2005)고 주장한다.

남자 노인들과 여자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가장 지혜로웠다고 회상하는 사건은 무엇인가? 그들이 보고하는 자신들의 지혜 경험은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암묵이론 혹은 추상적 개념을 반영할 것이다. 본 연구 3에서는 노년기 성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 사건을 지혜로운 사건으로 보는지 볼 것이다. 노년기 참가자들로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나이와 지혜의 정적 관계에 대한 상식적 생각들(Clayton et al., 1980; Holliday et

al., 1986)과 지혜가 나이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들(Denney et al., 1995; Heckhausen, et al., 1989; Perlmutter et al., 1988)을 고려해볼 때, 오랜 인생을 살아오고 다양한 인생경험을 가진 노년기 성인들의 경우, 자신이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보고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년기 성인 86명이다. 이 중 남자 노인은 30명이었고 여자 노인은 56명이었다. 남자와 여자의 인원을 균등하게 맞추려 하였으나, 면접자들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인터뷰가 가능한 남자 노인이 부족하여 여자 노인이 더 많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남녀 비율(34.9% : 65.1%)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⁴⁾을 잘 반영하고 있다. 참가자의 연령은 61-92세로 평균연령은 72.32세(표준편차는 6.30세)였다. 면접자는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서 노인심리학을 수강한 학생들로 이들은 수업시간을 통해 자서전적 인생이야기 방법에 대한 공부와 훈련을 한 다음, 연구자의 세부지침을 따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실시 전 별도로 참가자의

4) 2009년 현재 노인인구의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가 68.6명이다. 이는 2008년의 68.1보다 0.5명이 상승한 것이며 10년 전보다 7.4명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여자 노인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2009, 통계청).

인지 기능 검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은 면접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측정도구 및 절차

인생이야기 회고를 통해 자서전적 지혜 경험을 수집하였다. 인생이야기 회고는 McAdams의 인생이야기 실시 절차를 따랐다(McAdams, 2001). McAdams의 연구절차는 일대일 면접, 집단 면접 혹은 일기와 같은 글쓰기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실시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 면접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인생에서 자신이 가장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는데,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7개의 구체적 질문을 하였다. 7개의 질문은 사건이 일어난 시기,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건에 관련되었던 사람들, 사건 당시 느낌이나 생각, 자신에게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그 사건이 인생에 미친 영향, 그 사건 이후의 인생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면접 시간은 참가자에 따라 50분에서 3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면접 장소는 자택, 노인회관 등으로 다양하였다. 면접자는 인터뷰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면접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고, 이것을 다시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면접이 끝난 다음, 각 면접자는 면접의 전반적 분위기, 피면접자의 이야기 톤, 면접 참여 태도에 대해 보고하였고, 연구자가 녹음된 내용을 듣고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86명 중 5명은 지혜 경험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므로 81명에 대해서만 이야기 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을 위해 참가자들의 면접 내용은 참가자의 성별을 모르는 훈련 받은 2명의 학부생 채점자에 의해 채점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인생이야기 내용 중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초기, 중년기, 노년기로 범주화하였다. 두 번째는 사건의 종류이다. 지혜 사건의 범주화는 Glück & Bluck(2007)이 개발한 내용 영역 목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Glück 등(2007)의 범주와는 조금 달랐는데, 참가자들이 보고한 지혜 사건의 종류는 직업적 성취, 자녀, 가족 희생과 인내, 일반적 성취, 종교, 봉사로 범주화하였다. 지혜 사건 종류의 범주에 대해 두 명의 채점자가 채점을 하였을 때 kappa는 .81이었다.

결과 및 논의

지혜 경험을 했던 인생 시기는 남녀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중년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성인초기와 노년기로 비슷하였다. 아동기와 청년기를 보고한 사람이 각 1명이었고, 청소년기는 한 명도 없었다. 성인초기라고 보고한 사람이 17명(21.3%), 중년기는 45명(56.3%), 노년기가 16명(20%)이었다. 즉, 노년기 성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경험은 아동기나 청년기와 같은 인생의 초반기가 아닌 성인기 이후 특히 중년기 이후의 인생 후반에 일어났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지혜가 어느 수준의 연령 즉, 중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단지 사람들의 지각에서 지혜가 특정 연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노년기 참가자들의 기억이 성인기 이전의 젊은 시절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암묵적

이론에서 지혜가 나이 듦과 관련이 있고 (Clayton et al., 1980), 지혜는 중년에 시작하여 86세 전까지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Heckhausen et al., 1989)에 비추어 볼 때, 참가자들이 중년기를 가장 많이 보고한 것은 부분적으로 지혜와 연령에 관한 암묵적 이론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흥미로운 결과는 보고된 지혜 사건 유형의 남녀 차이이다. 보고된 지혜 사건의 첫 번째 유형은 업무, 직장과 관련된 성취 장면이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을 해결한 것, 자신이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오른 것 등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자녀와 관련된 것으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녀교육을 포기하지 않은 일, 자녀 양육이나 결혼과 관련되어 옳은 결정을 한 것 등이었다. 세 번째는 자녀가 아닌 다른 가족에 대한 희생과 봉사 등이다. 남자의 경우는 단 한 명만이 가족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을 지혜로웠다고 보고하였고, 여자의 경우에는 6명이었는데 이 중 대부분은 남편에 대한 희생, 봉사, 인내를 이야기하였고 나머지는 시어머니의 병수발, 시누이, 시동생과의 사건을 이야기하였다. 네 번째 범주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영역

에서의 일반적 성취로 범주화되었는데, 주로 다양한 인생사건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 문제해결을 통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인생결정을 잘 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던 사건을 보고한 경우였다. 다섯 번째는 종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지혜롭다고 대답한 사람들인데, 이는 소수이나 앞의 어느 범주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어서 따로 분류하였다. 여섯 번째는 가족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봉사를 언급한 경우이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보고하는 지혜로운 사건의 범주 혹은 유형이 뚜렷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chi^2=32.022, df=5, p<.001$). 남자들의 경우에는 직업적 성취와 관련된 사건의 보고가 55.6%로 가장 많았지만 직업적 성취를 보고한 여성은 3.7%에 불과하였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녀와 관련된 사건이 57.4%로 가장 많았으나 남성들의 경우 14.8%만이 자녀와 관련된 사건을 보고하였다. 나머지 범주에서는 남자와 여자 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과 관련된 전통적 이론

표 5 인생이야기 지혜 사건 범주의 남녀 차이

지혜사건 범주	남자(N=27)	여자(N=54)	전체(N=81)
직업적 성취	15명(55.6%)	2명(3.7%)	17명(21.0%)
자녀	4명(14.8%)	31명(57.4%)	35명(43.2%)
가족 희생과 인내	1명(3.7%)	6명(11.1%)	7명(8.6%)
일반적 성취	4명(14.8%)	9명(16.7%)	13명(16.0%)
종교	1명(3.7%)	3명(5.6%)	4명(4.9%)
봉사	2명(7.4%)	3명(5.6%)	5명(6.2%)
무응답	3명	2명	5명

과도 일맥상통한다. 생애이야기를 통한 노인의 자아 연구(박경숙, 2004)에서 할머니들은 생애이야기를 할 때 대체로 결혼 이후 가족생활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는 반면, 할아버지는 군대참전이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지혜는 인생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생애에서 결혼과 가족의 의미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는 관계인 반면, 남성의 생애에서는 일과 사회 참여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지혜의 지각은 성역할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둘의 관계는 이 후 연구들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이야기 지혜 사건 범주의 남녀 응답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지혜에 대한 이론적 문헌들과 몇몇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혜의 암묵적 이론이 성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세 개의 암묵적 지혜 이론 연구에서 성차를 조사하였는데 3개 연구 모두에서 성차가 발견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연구 1에서 지혜의 전형적인 특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녀에게서 조금 달랐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절제와 균형, 공감적 대인관계의 요인들을 더 중요하고 전형적인 지혜의 특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 2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그 사람의 지혜 특질에 대해 평정하게 하였는데, 남성과 여성이 지명하는 지혜자의 성별에서 차이가 있었다.

남성 참가자는 남성을 지혜자로 더 많이 지명하였고, 여성 참가자는 여성을 지혜자로 더 많이 지명하였다. 또한 지혜자와의 관계에서도 성차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는 친구와 동료, 선후배나 상사와 같이 직업이나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지혜자로 많이 지명한 반면, 여성들의 경우는 부모와 조부모를 많이 지명하였다. 또한 남자 지혜자와 여자 지혜자에 대한 지혜 평정에서도 성차가 나타났는데, 남자 지혜자들보다는 여자 지혜자들이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에서 더 뛰어난 것으로 평정하였다. 연구 3에서는 노년기 참가자들에게 인생 전반을 통해 자신이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는 인생 사건을 회상하게 하였다. 남성 참가자들이 직업적 성취 영역을 많이 언급한 반면(55.6%), 여성은 단지 3.7%만이 직업적 성취 영역을 언급하였다. 또한 남성의 14.8%만이 자녀와 관련된 사건을 보고한 반면 여성의 57.4%가 자녀와 관련된 사건을 지혜 사건으로 보고하였다.

연구 1에서 비록 남성이 여성보다 인지적 역량 요인을 조금 더 높게 평정하긴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Glück 등(2009)의 연구결과와는 다른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인지적 차원에서 약간 더 높았으며, 여성들은 대인간 차원에서 약간 더 높았다. 본 연구결과와 Glück 등(2009)의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참가자의 연령 차이 때문일 수 있다. Glück 등의 연구에서는 중년층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젊은 대학생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의 젊은 한국 여대생들은 남학생들만큼 인지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대인관계 요인을 더 중요한 지혜 특질로 생각한다는 것은 두 연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혜의 측면은 조금 다르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연구 2는 지혜자 지명 연구로 “지혜로운 남성”과 “지혜로운 여성”의 구체적인 실제 인물을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지혜에 대해 평정하는 것이었다.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에서 지혜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연구 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으로 각 지혜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상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구 2의 성차는 연구 1에 비해 작았는데 그 이유는 평정의 대상이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즉, 지혜의 원형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지혜는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속성들 모두에서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혜로운 개인은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성격 특질을 조합하기 때문에 양성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Heath, 1991; Jung, 1971; Labouvie-Vief, 1990; Maslow, 1970; Pascual-Leone, 1990). Orwoll과 Achenbaum(1993)에 따르면, 지혜로 이르는 과정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특별한 힘을 발휘하여 성별과 관련된 한계를 극복하므로, 상대적으로 지혜의 인지적, 감정적 차원을 통합하는 사람이다. Ardel(2009)의 연구 결과도 이러한 주장과 일치하는데, 지혜 점수에서 상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에서는 지혜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하위 75%에서는 뚜렷한 성차를 발견하였다.

연구 3의 결과는 Bluck & Glück(2004)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들의 연구에서 여성들과 남성들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달랐는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공감과 지지적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으로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남성의 지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소 인지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고, 덜 감정 지향적인 반면, 여성의 지혜에 대한 이해는 감정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끈다.

세 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추상적이고 언어적인 지혜 정의와 현실의 삶에서 지혜와 관련된 경험들의 관점이 “성별 특정적이다”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개인이나 실제 생활 문제들을 처리하는 자기 자신의 방식에 있어서의 실제 지혜 지각은 성 특정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혜의 성 특정성에 대한 Jung(1964)의 언급과도 일치한다. “여성의 꿈에서 자기는 대개 뛰어난 여성적 모습-여성 사제, 여자 마법사, 대지의 여신, 자연이나 사랑의 여신-으로 구체화된다. 남자의 경우에 그것은 남성적 창시자 혹은 수호자(예. 힌두교 지도자), 나이든 현자, 자연의 정령 등으로 나타난다.”(Birren & Svensson, 2005에서 재인용). 물론 지혜는 여성적이고 남성적인 특질 모두의 조합을 요구하지만 남성과 여성들이 지혜의 여러 측면들에 가치를 두는 방식(즉, 어떤 측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이 다르다는 사실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서 남녀가 다르다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연구 1, 2, 3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을 더 중요한 지혜 특질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혜의 다른 요인들보다 공감적 대인관계 혹은 감정적 요인에서 성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 보고된 지혜를 측정할 Ardel(2009)의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 남성은 감정적 차원에서 여성보다 더 낮은 평정을 하였지만 인지적 차원이나 반성적 차원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슬로바키아 대학생 표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발견되었다 (Benedikovičová & Ardel, 2008).

하지만 연구 3에서 ‘왜 실제 삶에서의 지혜 사건에서 남성과 여성이 보고한 영역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지혜가 나타나는 영역이 다른 것이 남자와 여성의 지혜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삶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한국의 60세 이상 성인들의 인생 역사를 볼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인기 동안 직업생활을 해왔을 확률이 높으나 여성들의 경우 직업을 가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음으로, 이것이 인생 전반에 걸친 직업 유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전반 동안의 직업내력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Glück 등(2009)의 연구에서 성인기 동안 직업을 가졌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에도 남성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관련된 사건을 더 자주 보고한 반면, 여성들은 가족 관련 사건이나 죽음이나 질병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한 좀 더 광범위한 영역을 많이 보고하였다.

그렇다면 지혜의 암묵이론은 왜 성별 특정적일까? 이러한 성차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성 특정적 사회화일 것이다. 남자 아이들에게는 자율성을, 소녀들에게는 관계성과 상호의존을 증진시키는 성 특정적 사회화 관습이 보편적이다(Mead, 1944). 이와 마찬가지로 Orwoll 등(1993)은 인생 과정을 통한 성 특

정적 사회화, 장애물들, 기회 때문에 지혜에 이르는 경로가 남자와 여자에게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자 아이들은 흔히 세계를 탐색하고 독립적이고 자기 의존적이 되도록 사회화된다(Blazina, 2001). 따라서 “남성적” 사고는 분리, 초연, 숙달, 성취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자기 충족적 개별주의로 묘사될 수 있다(Sampson, 1977). 반대로 소녀들은 공감,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능력과 같은 대인간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고무된다(Surrey, 1993). 실제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 전형적인 활동을 조장함으로써 딸과 아들에게 성 특정한 특질들을 더 증진시킨다(Lytton & Romney, 1991). 예를 들어, 성 특정적 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부모와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똑같이 일관적으로 남자아이들과 놀 때는 “여성적” 장난감(인형이나 인형 집)이나 “중립적” 장난감(퍼즐이나 책)보다는 “남성적” 장난감(공구나 트럭)을 선택하고, 여자아이들과 놀 때는 “여성적” 장난감과 “중립적” 장난감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Wood, Desmarais, & Gugula, 2002). 따라서 남성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분리된 방식으로 현실을 지각하는 것이 여성보다 더 쉬운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계에 있어서 공감적이고, 보살피고, 더 성숙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남성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세상에 접근하고 진실을 알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며, 여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감정이입, 연민, 배려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지혜측정이 아닌 일반인들의 지혜에 대한 생각 즉, 지혜의 암묵이론에서의 성차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지혜의 암묵이론을 조사한 연구

는 이전에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연구가 최초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들의 지혜의 암묵이론에서 성차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지혜의 암묵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세 개의 상이한 방법을 사용하여 암묵이론의 성차를 반복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 후 이루어질 지혜의 암묵이론 연구뿐만 아니라 명시적 이론 연구에 방법론적,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 1과 연구 2에 비해 연구 3의 참가자 수가 적었는데, 이는 노년기 성인 참가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또한 노년기 성인의 특성 상, 일대일 면접을 진행해야 하는 것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인기 연령층을 포함한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서전적 인생이야기가 그 속성상 회고적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Achenbach & Edelbrock, 1978),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억능력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인생에서 발생한 하나의 지혜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일생 동안 지혜의 경험은 여러 번일 수 있고, 각각의 지혜 경험마다 특징이 다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모든 지혜 경험의 특징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 3에서 나타난 성차가 남자와 여자의 고용 역사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평생의 직업 유무

를 통제 후 성차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지혜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은 지혜 개념이 본질적으로 양성적인 구성개념임을 보여주었다(Aldwin, 2009). 본 연구를 토대로 미래에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다. 첫째, 이후 연구에서는 암묵적 이론의 성차가 개인적 지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개인적 지혜 평정에서도 동일한 성차가 발견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즉, 자신의 개인적 지혜를 평정할 때 나타나는 성차가 일반적 지혜 특질에 대한 전형성의 평정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정의 성차와 같다면 이것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암묵적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지혜 차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암묵이론을 형성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둘째 성별과 지혜의 관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자신의 지혜 평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에 대한 생각 즉 자기개념이 타인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가능하다. 두 가지 설명 중 어떤 것이 맞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사람들의 개인적 지혜를 측정하여 그 관계를 확인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둘째, 암묵적 이론을 측정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지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주기보다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론에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요인 중 성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 후 연구에서는 성별이 아닌 연령이나 세대, 혹은 서구와 비서구권의 문화적 가치들이 지혜의 암묵이론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가상적 인물에 대한 지각 연구 즉, 시나리오 연구는 지혜 지각 연구의 주요한 연구 방법이다(Stange, 2005). Glück 등(2009)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가상적인 지혜로운 남성(Paul)과 지혜로운 여성(Paula)에 대해 지혜와 관련된 특질을 평정하게 하였을 때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들에 비추어볼 때, 가상적 인물에 대한 지혜 평정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나리오 연구법과 더불어 비디오 연구 방법을 시도해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성별, 인종, 나이와 같은 특징들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제시하는 것과는 고정 관념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Brewer, 1988; Fiske & Neuberg, 1990; Fiske & Taylor, 1991).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활용한다면 암묵이론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남성이나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의 차이로 남성은 인지적 측면에서 더 이로운 반면, 여성은 대인 간 측면에서 더 이로운 것이라는 주장과(Aldwin, 2009), 지혜로운 개인은 양성적이고,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경로로 지혜에 이른다는 주장(Orwoll et al., 1993)을 고려해볼 때 남성과 여성의 다른 지혜 발달 경로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미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희, 민경환 (2010). 지혜의 연령차와 중노년기 심리적 적응과의 상관. *한국노년학*, 30(3), 947-971.
- 박경숙 (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 *한국사회학*, 38(4), 101-132.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78). The classification of child psychopathology: A review and analysis of empirical efforts. *Psychological Bulletin*, 85(6), 1275-1301.
- Achenbaum, W. A., & Orwoll, L. (1991). Becoming wise: A psychogeront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job.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2, 21-39.
- Aldwin, C. M. (2009). Gender and wisdom: A brief overview.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6(1), 1-8.
- Ardelt, M. (2000). Antecedents and effects of wisdom in old ag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aging well. *Research on Aging*, 22, 360-394.
- Ardelt, M. (2003). Empirical assessment of a three-dimensional wisdom scale. *Research on Aging*, 25, 275-324.
- Ardelt, M. (2009). How similar are wise men and women?: A comparison across two age cohort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6(1), 9-26.
- Atkinson, R. (Ed.). (1998). *The life story interview*, 44. Thousand Oaks: Sage.
- Baltes, P. B., Staudinger, U., Maercker, A., & Smith, J. (1995). People nominated as wise: A comparative study of wisdom-related knowledge. *Psychology and Aging*, 10, 155-166.

- Benedikovičová, J., & Ardel, M. (2008). The three-dimensional wisdom scale in cross-cultural context: A comparison between American and Slovak college students. *Studia Psychologica*, 50(2), 179-190.
- Birren, J. E., & Svensson, C. M. (2005). Wisdom in history. In R. J. Sternberg & J. Jordan(Eds.), *A handbook of wisdom: Psychological perspectives*(pp. 3-3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zina, C. (2001). Analytic psychology and gender role conflict: The development of the fragile masculine self.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8(1), 50-59.
- Bluck, S., & Glück, J. (2004). Making things better and learning a lesson: "Wisdom of experience" narratives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72, 543-573.
- Bluck, S., & Glück, J. (2005). From the inside out: People's implicit theories of wisdom. In R. J. Sternberg & J. Jordan(Eds.), *A handbook of wisdom: Psychological perspectives* (pp. 84-10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nt, S. B., & Watson, D. (1980). *Aging and wisdom: individual and collective aspec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San Francisco.
- Brewer, M. B. (1988). A dual process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In T. K. Srull & R. S. Wyer(Eds.),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Vol. 1, pp. 1-36). Hillsdale: Erlbaum.
-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ss, D. M., & Craik, K. H. (1981). The act frequency analysis of interpersonal dispositions: Aloofness, gregariousness, dominance and submiss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49(2), 175-192.
- Cantor, N., Mischel, W., & Schwartz, J. C. (1982). A prototype analysis of psychological situations. *Cognitive Psychology*, 14(1), 45-77.
- Clayton, V. P., & Birren, J. E. (1980). The development of wisdom across the life span: A reexamination of an ancient topic. In P. B. Baltes & J. O. G. Brim(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pp. 103-135). New York: Academic Press.
- Denney, N. W., Dew, J. R., & Kroupa, S. L. (1995). Perceptions of wisdom: What is it and who has i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 37-47.
- Erikson, E. H. (1975). *Life history and the historical moment*, New York: W. W. Norton & Co.
- Farrell, A. H., & Hershey, D. A. (1996). A perceptually-based approach to the study of wisdo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 Fiske, S. T., & Neuberg, S. L. (1990). A continuum of impression formation, from category-based to individuating processes: Influences of information and motivation on attention and interpretation.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3, pp. 1-74). San Diego: Academic Press.
- Freud, S. (1935). The sexual life of man. In *A*

-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 New York: Liveright.
- Glück, J., & Bischof, B., & Siebenhüner, L. (2008). "Knows what is good and bad," "Can teach you things," "Does lots of crosswords:" Children's knowledge about wisdom. Manuscript under review.
- Glück, J., & Bluck, S. (2007). Looking back across the lifespan: A live story account of the reminiscence bump. *Memory and Cognition*, 35, 1928-1939.
- Glück, J., & Bluck, S.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conceptions of wisdom: What it is and where it comes from*. Manuscript under review.
- Glück, J., Strasser, I. & Bluck, S. (2009). Gender Differences in Implicit Theories of Wisdom.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6(1), 27-44.
- Heath, D. H. (1991). *Fulfilling lives: Paths to maturity and success*. San Francisco: Jossey-Bass.
- Heckhausen, J., Dixon, R. A., & Baltes, P. B. (1989). Gains and losses in development throughout adulthood as perceived by different adult age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109-121.
- Hershey, D. A., & Farrell, A. H. (1997). Perceptions of wisdom associated with selected occupation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Current Psychology: Developmental, Learning, Personality, Social*, 16, 115-130.
- Hira, F. J., & Faulkender, P. J. (1997). Perceiving wisdom: Do age and gender play a par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4, 85-101.
- Holliday, S. G., & Chandler, M. J. (1986). Wisdom: Explorations in adult competence. In J. A. Meacham(Ed.), *Contributions to human development* (Vol. 17, pp. 1-96). Basel: Karger.
- Jason, L. A., Reichler, A., King, C., Madsen, D., Camacho, J., & Marchese, W. (2001). The measurement of wisdom: A preliminary effor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 585-598.
- Josselson, R., & Lieblich, A.(Eds.). (1999). *Making meanings of narrative*(6). Thousand Oaks, CA: Sage.
- Jung, C. G. (1971). The Stage of life. In J. Campbell(Ed.), *The Portable Jung*(pp. 3-22). New York: Penguin Books.
- Labouvie-Vief, G. (1990). Wisdom as integrated thought: Histor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R.J. Sternberg(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52-83).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tt, H. M. (1999). The development of wisdom: An analysis of Tibetan Buddhist experienc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9, 86-105.
- Lytton, H., & Romney, D. M. (1991). Parents'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boys and girl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2), 267-296.
- Maciel, A. C., Staudinger, U. M., Smith, J., & Baltes, P. B. (1991). *Which factors contribute to wisdom: Age, intelligence, or personality?* Paper presented at the The 99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2nd ed.). New York: Harper & Row.
- McAdams, D. P.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 100 -

- 122.
- McAdams, D. P., Josselson, R., & Lieblich, A. (2006). *Identity and story: Creating self in narrativ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ead, M. (1944). Women's social position. *Journal of Educational Sociology*, 17, 453-462.
- Michaud, G. J. (2004). *Living Wisdom: Understanding wisdom through life story*. Doctorial dissertation, Fielding Graduate Institute.
- Orwoll, L., & Achenbaum, W. A. (1993).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isdom. *Human Development*, 36, 274-296.
- Overton, W. F. (2003). Embodied development: Ending the nativism-empiricism debate. In C. Garcia Coll, R. E. Bearer, & R. Lerner(Eds.), *Nature and nurture: The complex interplay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human behavior and development*(pp. 203-22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scual-Leone, J. (1990). An essay on wisdom: Toward organismic processes that make it possible. In R. J. Sternberg(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244-27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ulhus, D. L., Wehr, P., Harms, P. D., & Strausser, D. I. (2002). Use of exemplar surveys to reveal implicit types of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051-1062.
- Permuter, M., Adams, C., Nyquist, L., & Kaplan, C. (1988). *Beliefs about wisdom*. Unpublished data.
- Randall, W. L., & Kenyon, G.M. (2001). *Ordinary wisdom: Biographical aging and the journey of life*. Westport, CT: Praeger.
- Rosch, E. (1978).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In E. Rosch & B. B. Lloyd(Eds.),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 Erlbaum.
- Sampson, E. E. (1977). Psychology and the American ide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11), 767-782.
- Shedlock D. J., & Cornelius, S. W. (1995). *Implicit Theories of wisdom: Explora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 prototype approach*.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diana.
- Singer, J. A. (2005). *Narrative analysis: How the use of a "story methodology" can inform research within the field of Psychology and law*. Paper 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y-Law Society Conference, La Jolla, CA.
- Smith, J., Staudinger, U. M., & Baltes, P. B. (1994). Occupational settings facilitating wisdom-related knowledge: The sample case of clinical psychologis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989-999.
- Sowarka, D. (1989). Weisheit und weise Personen: Common- Sense- konzepte alterer Menschen. [Wisdom and wise persons: Common-Sense conceptions of older people.] *Zeitschrift fur Entwicklungspsychologie und Paedagogische Psychologie*, 21, 87-109.
- Stange, A. (2005). *The Social Dimension of Wisdom: Conditions for Perceiving Advice-Giving Persons as Wise*. Doctorial dissertation, Berlin University.
- Sternberg, R. J. (1985).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creativity, and wisdo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607-627.
- Sternberg, R. J. (1998). A balance theory of

- wisdom.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47-365.
- Surrey, J. L. (1993). Self-in-relations: A theory of women's development. *Advanced Development*, 5, 1-11.
- Takahashi, M., & Bordia, P. (2000). The concept of wisdom: A cross-cultural comparis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5, 1-9.
- Takahashi, M., & Overton, W. F. (2002). Wisdom: A culturally inclusive development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6, 269-277.
- Takayama, M. (2002). *The concept of wisdom and wise people in Jap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okyo University, Japan.
- Wood, E., Desmarais, S., & Gugula, S. (2002). The impact of parenting experience on gender stereotyped play of children. *Sex Roles*, 47(1/2), 39-49.
- Yang, S. (2001). Conceptions of wisdom among Taiwanese Chines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662-680.

1차원고접수 : 2010. 10. 10.

최종게재결정 : 2010. 12. 21.

Gender Differences in Implicit Theories of Wisdom

Min Hee Kim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is aimed at to explore the gender differences in implicit theories of wisdom in Korea. Three studies investigated different aspects of gender differences in implicit theories of wisdom. In study 1, participants rated characteristics of wisdom concerning their importance for wisdom. Gender differences are reported in 'moderation and balance' factor and 'sympathe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 factor. This result suggest a slightly affection and relation oriented view of wisdom in women. Study 2 showed gender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ascribed to a male wise person and a female wise person. 'sympathe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were rated as slightly more typical for a female wise person. and male participants nominated male wise person more whereas women participants nominated female wise person more. Study 3 showed gender differences in participants' reports of an event in which they were wise. Men most often reported events from their professional life whereas women most reported children-related events. In sum, the findings suggest gender differences in conception of wisdom namely implicit theory of wisdom. Finally, gender difference was discussed from gender-role and gender-specific socialization.

Key words : *implicit theory, wisdom, gender differences, wise person, sympathe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 autobiographical narrative study, sex role.*